

# 고대 및 중세 佛殿의 이용방식에 관한 研究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李 廷 國

(공학박사)

주제어 : 불전 출입, 의례, 행도, 불전 평면

## 1. 서론

사찰 건축은 불교의 교리와 사상, 의례의 형식 등에 적합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건축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배치와 내부공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부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이나 공간의 이용 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배치의 연구에서 내부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외부공간만을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파악함으로써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찰의 내부공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유구가 많이 남아있는 조선후기와 관련된 내용이며 조선시대 이전의 불전내부공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sup>1)</sup>

1) 불전의 내부공간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이기홍, 「9~11세기 사찰의 금당형식을 통해 본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車周煥, 「寺刹建築의 內部 바닥마감에 관한 연구」-礎石, 기둥, 引枋의 結構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8)

이강근,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殿建築 比較연구-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30, 한국미술사학회, 2001, 6

———,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미비했던 고대 및 중세 불전의 내부공간, 특히 그 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불전을 출입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만약 출입을 할 수 있었다면 내부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평면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유구 중 그 시대에 해당하는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유구도 승유역불을 이념적 가치로 내세웠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경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자

『美術史學』 12,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8.

여기에서 이기홍의 논문은 금당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각 시기별로 배치형식과 금당의 규모를 연관시켜 분류하였으며 차주환의 논문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존하는 건물 일부의 바닥마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바닥마감과 결구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강근의 논문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殿建築 比較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불전의 장엄법식과 중국 불전의 장엄법식을 비교하고 있으며,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고대 불전의 평면을 형식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찰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이강근이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에서 불교의례와 入堂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李廷國, 「高麗時代 寺刹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漢陽大 博士學位 論文, 1997년 12월)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본인의 학위논문에서는 실증자료로서 그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예를 일부 추가하고 우리 나라의 목탑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료로 문헌사료가 있지만 이 역시 당시 건축공간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공간을 규명하는 사료로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이며 그나마 자료의 양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의 예를 우리 나라와 동일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간의 이용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형식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자료의 보충에 대한 타당성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대적으로는 고대와 중세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고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불전의 출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불전의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래서 당시 불전의 출입부와 그에 따른 공간의 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불교가 전래된 초기의 상황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여 삼국시대 후기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본론

### 1) 불전의 출입에 대한 문제

고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주요 사찰건축은 중문-탑-불전-강당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중심공간이 회랑에 의해 둘러싸였고 불전은 그 중심에 놓여있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시 불전에 출입이 가능했는지 여부는 당시 사찰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동선의 처리 등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불전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대 또는 고려시대에는 출입할 수 없었거나 제한되었다고 한다. 즉 평지가람에서 성역인 중문으로부터 회랑 안의 탑과 금당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거나<sup>2)</sup> 불전 외부의 마당이나 석등 앞에 있는

拜禮石에서 예불이 행하여졌다고도 하며<sup>3)</sup> 고려조까지의 주불전은 승려층의 의식을 위한 공간이었다<sup>4)</sup>고도 한다.

그런데 불전의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근거로는 일본의 상황을 우리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해하거나 또는 당시 대부분의 불전의 바닥 마감이 塼이었기 때문에 마루로 마감된 현재의 불전과는 달리 불전 내부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생긴 결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대나 중세에 금당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5)</sup> 이에 대해 山岸常人是 '지금까지 고대에는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法隆寺나 藥師寺의 금당은 내부에 들어가서 佛事를 수행했는데 法隆寺의 경우 9세기 후반까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고 하여 불전에 출입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국미술사학회, 1987, 12, p.1.

3) 光森正士, 「韓國古代佛敎寺院的禮佛空間について-特に禮拜石と奉爐石を中心として」 『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國佛敎美術の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 奈良國立博物館, 1993, pp.1-2. 여기에서 저자는 塔과 金堂 등은 回廊으로 둘러싸여 구획되어 종교적 행사(예배, 독경)가 행하여지는 공간으로 불당은 불상이 소유하는 말하자면 점유공간이며 본존의 예배와 경전 독송 등은 모두 당 밖의 前庭에서 행하여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배의 장소를 明示해 주는 것으로 拜禮石을 들고 있다. 또한 이강근, 「韓國 古代 佛敎 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12,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8, p.60참조.

4) 金奉烈은 大雄殿의 空間 分化가 禮佛 儀禮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고려조까지의 主佛殿은 승려층의 의식을 위한 공간이었고 조선시대의 의식은 일반신도까지 주불전 출입이 가능하며 의식보다는 설법을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9, 8) p.111.

이에 대해 이강근은 「선원사비로전단청기」의 기록을 근거로 '내부출입자가 승려만인가 아니면 일반신도인가의 구분으로 바닥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강근, 「조선후기 불교사원건축의 전통과 신조류」 『미술사학연구』 202호, 1994년 6월, 132쪽 주 12)

5) 일본의 경우 예불이 당 밖에서 행해져서 승려들조차도 금당에 출입할 수 없었고 당 안에는 부처의 정토로서 장려함을 고려했지만 외관을 특히 중시해서 처마를 커다랗게 만들고 지붕을 당당한 형태로 구성하였다고(淺野 清, 「日本の佛堂」 『佛敎藝術』 69号, 毎日新聞社, 1968, p.4. 한다. 이에 따라 예배공간도 佛堂[正堂]의 정면에 禮堂을 설치한 雙堂型式과, 당의 정면에 덧댄 차양[孫庇]을 설치하는 형식이 있었다. 藤田勝也, 古賀秀策, 『日本建築史』 昭和堂, 1999, p.58.)

6) 山岸常人, 「古代金堂の性格の變容」 『日本建築學大會學術講演概要集(東海)』 1985, 10, pp.587-588.

2) 金正基, 「高麗時代·木造建築」 『考古美術』 175-176호, 한

그렇다면 사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불전의 출입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A.

1. (승려인 심지는) 中岳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속리산의 沈公이 眞表律師의 佛骨筒子를 전해 받아서 果丁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뜻을 결정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땅에 앉아서 마당을 치면서 신도들을 따라 예배하고 참회했다. …… 여러 사람이 그 신기하고 이상함을 보고 당에 들어오기를 허락했으나 심지는 사양하여 거짓 병을 칭탁하고 방안에 물러앉아 당을 향해 조용히 예배했다.<sup>7)</sup>
2. 夫禮郎의 부모가 栢栗寺 불상 앞에 나가 여러 날 저녁 기도를 올리니 갑자기 향탁 위에 현금과 신적 두 보배가 놓여 있고 부레랑과 安常 두 사람도 불상 뒤에 와 있었다.<sup>8)</sup>
3. 우금리에 사는 가난한 여자 寶開에게 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사꾼들을 따라 나가더니 오래 되어도 소식이 없으며, 그 어머니가 민장사(이 절은 敏藏角干이 집을 회사하여 절로 만든 것이다)의 관음보살 앞으로 가서 7일 동안 기도했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sup>9)</sup>
4. 경덕왕 때에 漢岐里에 사는 여자 希明의 아이가 난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날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쪽 벽에 그린 천수관음 앞에 나아가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멀었던 눈이 드디어 떠졌다.<sup>10)</sup>
5. 景德王 때 康州의 남자 신자 수십명이 뜻을 西方에 구해서 州의 경계에 彌陀寺를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여 契를 만들었다. 이때 阿干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郁面이라 하였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염불했다. 주인은 그녀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매양 곡식 두 섬을 쥐 하룻밤 동안에 다 쪼개 하니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쪼개 놓고 절에 가서 염불하여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 그때 하늘에서 부르는데, 「郁面娘은 堂에 들어가 염불하라」 하였다. 절의 중들이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처럼 精進하게 했다.<sup>11)</sup>
6. 신라 말년 天成年間에 正甫 崔殷誠이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어서 이 절(東京 衆生寺)의 관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석달이 되지 않았는데 後百濟의 甄萱이 서울을 침범해와서 城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觀音像의 狹座 밑에 감추고는 못잊어 하면서 떠났다.<sup>12)</sup>
7. 왕륜사에 장육금상이 비로자나불 1구가 있는데 …… 시중 최정안이 장육금상을 존경하여 …… 이따금 법당에 가서 손수 차를 끓여 공양하기도 했다. …… 마침 장육금상을 예배하고자 금당에 들어가 보니 祿米 한斛이 불상의 香案 위에 있는 것이었다.<sup>13)</sup>
8. 송나라 때 서주자사였던 왕중덕이 팽성의 송왕사에 장육금상을 만들었다. …… 그때 불상이 많은 땀을 흘려 殿의 땅바닥을 적시었

7)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3. p.360. 卷 第四, 義解 第五, 心地繼祖條. (釋心地) 寓止中岳(今公山) 適聞俗離山深公眞表律師佛骨筒子 設果訂法會 決意披尋 既至後期 不許參禮 乃席地扣廷 隨衆禮懺……衆見其神異 許引入堂地 搗謙稱恙 退處房中 向堂潛禮'

8) 위의 책, p.235. 卷 第三, 塔像 第四, 栢栗寺條. '二親就栢栗寺大悲像前 禮祈累夕 忽香卓上得琴笛二寶 而郎常二人來到於像後'

9) 위의 책, p.237, 卷 第三, 塔像 第四 敏藏寺條, '禹金里貧女寶開 有子名長春 從海賈而征 久無音耗 其母就敏藏寺(寺乃敏藏角干捨家爲寺)觀音前 克祈七日 而長春忽至'

10) 위의 책, p.259. 卷 第三, 塔像 第四.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條, '景德王代 漢岐里女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11) 위의 책, p.360. 卷 第五, 感通 第七, 郁面婢念佛西昇條, '景德王代 康州善士數十人 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春之 婢一更春畢 歸寺念佛 日夕懈怠 …… 時有天唱於空 郁面娘入堂念佛 寺衆聞之 勸婢入堂 隨例精進'

12) 위의 책, 卷 第三, 塔像 第四, 三所觀音. 衆生寺條. '羅季天成中 正甫崔殷誠久無胤息 詣茲寺大悲前祈禱 有娠而生男 未盈三朔 百濟甄萱襲犯京師 城中大潰 殷誠抱兒來告曰……裏以襪襟 藏諸狹座下 眷養而去'

13) 李奎報,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국역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p.147. 卷之六十七, (王輪)寺有毘盧遮那丈六金像一軀……崔侍中精安 常痛敬丈六像……又往往造于堂 手煎茶供養……偶欲禮丈六入金堂見之 則有祿一斛 在佛香案上'

다. 위나라의 서주자사인 梁王이 법을 받들어 절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수건으로 닦게 하였다.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서 수십 인이 번갈아가며 닦았지만 멈추지 않자 왕이 예배를 드린 후 수건을 집어들고 빌기를……14)

9. 승정인 省奇가 승려와 대중 80여명을 모아 읽기를 트이게 하니 보살전 안에 홀연히 金燈이 40여 번 나타났다. 이에 상영이 奉養者가 될 생각으로 즉시 스스로 泥像을 만들었다. …… 상영이 예전에 대각성 동쪽에 있는 보광전 안에 있었다.15)

사료 1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堂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회가 열리고 예불을 행한 곳으로 보아 불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法會 때 원래 승려들은 불전 안에서 예불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불전 안에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사료에서처럼 일부 승려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당의 앞마당에서 예불을 드렸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2에서 大悲像前이라 함은 불전 내부의 대비상 앞일 것이며 또한 郎과 常 두 사람이 불상 뒤에 있었다는 것 역시 불전 내부에 승려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불상의 뒷부분은 사람이 있을 정도의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郎은 國仙이었으므로 이들은 귀족계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3에서도 역시 觀音前이라 하였는데 사료 2와 마찬가지로 불전 안의 관음상 앞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貧女라고 한 것을 보면 서민이하의 계급이었을 것이며, 이 절은 민장각간이 자기 집을 절로 만든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願堂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영건한 사찰도 일반인이 출입한 것을 보면 營建主만을 위한 폐쇄적인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출입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개방적인 형식이었을 것이다.

사료 4에 의하면 분황사 左殿의 北壁에 그려진 천수관음 앞에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분황사는 발굴결과 三金堂형식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좌전이라 함은 서금당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은 국가에서 지은 사찰인데 이러한 사찰의 금당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사료 5에 의하면 노비인 郁面이 절 마당에서 염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타사의 배치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찰의 일반적인 배치를 취했다고 한다 면 마당은 불전 앞의 마당이 될 것이다.

이 사료에 의하면 郁面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당시 노비들은 불전에 출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이 불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들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노비라 할지라도 불전 앞의 마당까지는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옥면에 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이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노비들도 불전의 출입이 허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景德王代로부터 신라의 念佛僧들이 민중을 교화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念佛道場을 건립하기 시작한16) 결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 6은 羅末麗初의 경우로 衆生寺의 觀音菩薩 앞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이 곳도 역시 佛殿의 내부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들은 신라시대의 예이지만 고려시대에도 승려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불전에 출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7은 왕륜사에서의 일인데 이 사찰은 919년에 고려 太祖가 10개의 사찰 중 하나로 창건한17) 사찰이었다. 丈六像이기 때문에 당연히 主尊佛이었을 것이며 왕륜사의 금당에 봉안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려의 관료였던 시중 최정안이 금당 안에 들어가서 공양을 하였고 丈六金像에 예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도 역시 승려가 아닌 일반 신도가 금당에 직접 들어가 예불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14)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第十四,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三卷, No2122, p.388b, '宋徐州刺史王仲德 於彭城宋王寺造丈八金像 …… 時像大汗殿地流濕 魏徐州刺史梁王奉法勤動至寺親使人以巾帛拭 隨拭隨出不已 至數十人交手競拭 猶不能止 王乃燒香禮拜執巾咒曰'

15) 刑獄公事 張商英 述, 『續清涼傳』 卷下, 新脩大正大藏經 No2100, 第五十一卷, p.1130b. '僧正省奇 集僧衆八十餘人讀疏訖 菩薩殿內 忽現金燈四十餘遍 商英 思有以歸奉者 卽自塑泥像 …… 商英昔在普光殿內 或於大覺城東'

16) 金文經, 『儀式을 통한 佛教의 大衆化運動』 『史學志』 第4輯, 단국대 사학회, 1970, 11, p.89.

17) 『北譯 高麗史』 第1冊, 사회과학원 古典研究室 編纂, 新書苑, 1991. p.82. 卷第一, 太祖-, 己卯二年 三月. '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

다. '비록 길이 멀지만 눈을 들어 절을 꿰뚫어보니 불당 안에는 승려 5명이 있었다'<sup>18)</sup>고 하여 승려가 불당에 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료 8에서는 魏의 서주자사인 梁王이 향을 사르고 예배하며 불상을 닦기 위해 수건을 잡고 빌었다는 것은 불전 안에서의 일이었다. 또한 사람을 시켜 수건으로 닦게 하였는데 이때 人이라 한 것을 보면 승려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승려가 아닌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9 역시 중국의 예인테 보살전에 主佛殿이 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려와 대중이 보살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전에 출입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商英은 이 글을 지은 刑獄公事라는 관리인데 商英이 보광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전에 출입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료의 보충을 위하여 비록 불전은 아니지만 탑의 출입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고대에는 사찰건축에서 불전보다는 탑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통일신라시대 이후 사리신앙이 불상신앙으로 바뀌면서 불전이 탑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탑이 비록 불전보다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대상을 모신 중요한 전각의 하나였다. 그래서 탑의 배치가 단탑형식이든 쌍탑형식이든 불전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감은사나 불국사에서와 같이 불전의 좌우에 익랑이 만들어져서 강당과 불전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불전을 포함하는 회랑 안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탑의 출입이 가능했다면 불전도 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료 B.

1. 이의민이 어렸을 때 善의 꿈에 의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의 구층탑을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이로써 그 아이가 필히 귀하게 될 것이라 여겼다.<sup>19)</sup>
2. 허공을 나는 듯 층층의 사다리를 빙빙 돌아

오르니, 萬水와 千山이 한눈에 꿰뚫어 보이는 구나. …… 내려다보니 얼마나 많은 동도의 집들이 벌집과 개미구멍들처럼 아득하게 보이는 구나.<sup>20)</sup>

3. 절 남쪽에 탑이 있는데 塼으로 7층을 쌓고 기와로 덮었다. 제일 밑의 한 층을 빙 둘러서 열두 칸의 廡로 하고 각 벽마다 부처와 보살 그리고 人天의 상을 그렸다. 그 밖으로 난간을 돌려 출입을 제한하였다. …… 공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적에 그 탑 밑에 묵었다고 하였다.<sup>21)</sup>
4. 비로소 연복사에 도착하여 층각에 올라 도성을 내려다보니 ……<sup>22)</sup>
5. 다섯 층이 산처럼 높이 솟았는데, 올라가 보니 斗杓를 잡을만하고 …… 나는 이미 구름 위에 있구나.<sup>23)</sup>
6. 어머니 장부인이 처음 아이를 잉태한 날 꿈에 통현사에 있는 탑의 상륜에 올라가 앉아서 사심 없이 멀리 보니 곧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sup>24)</sup>
7. 범명은 혜달로 백성들이 부처와 같이 생각하여 우리러보았다. …… 낮에는 高塔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밤에는 잠실에 들어가 스스로 몸을 숨겼다.<sup>25)</sup>

사료 1과 2는 황룡사에 관한 내용이다. 사료 1의 경우 비록 꿈에 황룡사에 올라갔지만 일반인도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료 2는 고려 시대 관리인 金

18) 大唐西明寺沙門釋道宣撰, 『續高僧傳』, 卷第二十六, 新脩大正藏經 No2060, 第五十卷, p.238c. '路雖遠映舉目徹見寺僧五人在佛堂內'

19) 『北譯 高麗史』 第11冊, 사회과학원 古典研究室 編纂, 新書苑, 1991, p.336. 卷 第一百二十八, 李義敦條. '義敦少時善夢見義敦衣青衣 登黃龍寺九層塔 以爲此兒必大貴'

20)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3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1971년, p.201. 卷之二十一, 古蹟條 皇龍寺, 金克己 詩. '層梯縹緲欲飛空 萬水千山一望通…… 俯視東都何限戶 蜂窠蟻穴轉溟濛'

21) 李崇仁, 衿州安養寺塔 重新記, 『국역 東文選』, 6, 민족문화추진회 편, p.412. 卷之七十六. '寺之南有塔 累塼七層蓋以瓦 最下一層 環以周廡十又二間 每壁繪佛扶薩仁天之像 外樹欄楯 以限出入……公曰吾之少也 一嘗寓宿塔下'

22) 蔡壽, 遊松都錄, 『국역 동문선』, 11,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p.515, 續東文選, 卷之二十一, '初到演福寺 登層閣 俯瞰都城'

23) 『梅月堂詩集』, 卷之九, 登演福寺塔. '五級正峯曉 登臨挹斗杓 …… 我已上雲霄'

24) 大唐西明寺沙門釋道宣撰, 『續高僧傳』, 卷 第十四, 新脩大正藏經, No2060, 第五十卷, p.531c. '母氏張夫人 初懷孕日 夢升通玄寺塔 登相輪而坐 遠視臨虛曾無懼色'

25)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 第三十一 感應緣, 新脩大正藏經 No2122, 第五十三卷, p.515c. '法名慧達 百姓仰之敬如佛想 …… 晝在高塔爲衆說法 夜入繭中以自沈隱'

기의 시인데 실제로 황룡사 구층탑 위에 올라가서 경주를 내려다 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역시 일반인도 불탑에 올라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사료 3은 7층의 전탑이지만 공이 어릴 적에 탑 밑에서 묵었다고 한 것을 보면 역시 일반인이 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였을 것이다.

사료 4와 5는 연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연복사는 廣通普濟寺 또는 普濟寺라고도 하였으며 사료 4에서 말하는 층각은 사료 5에서 말하는 5층탑을 말한다. 사료 4에서 층각에 올라가 도성을 내려다보았다고 한 것은 단지 탑의 기단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탑 내부의 상층으로 올라간 것을 말한다. 그 위로 올라가야만 도성이 굽어보였을 것이다. 사료 5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登演福寺塔이라 함은 탑에 올라가서 본 내용을 말한다. 올라가 보니 하늘에 있는 두표를 잡을 만하고 구름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탑에 들어가야만 했다. 따라서 위의 사료들은 일반인들이 탑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6에서는 비록 꿈이지만 통현사의 탑에 올라가 상륜에 앉았다고 하였고 사료 7에서는 慧達이 탑에서 대중에게 설법하였다고 하였다. 탑에서 설법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강당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高塔이라고 한 것을 보면 탑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나 중세에 비록 불전은 아니지만 중요한 예불공간의 하나인 탑에 승려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승려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탑뿐만 아니라 불전도 출입이 가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승려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국가가 영건한 사찰이나 개인이 영건한 사찰에 관계없이 모두 불전에 출입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전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의례는 기도의 예가 많았지만 법회의식이나 염불의례, 공양의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불전의 평면도 이러한 의례를 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 2) 불전 바닥의 마감과 이용방식

고려시대의 불전인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여말선초의 불전들 또는 발굴되어 밝혀진 고대나 중세의 불전바닥은 대부분 원래 塼으로 마감되어있었다. 그런데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 초엽에 전바닥이 마루로 바뀌는 일이 전국적으로 유행했다고<sup>26)</sup> 한다.

물론 이전에도 '그 밑에 있는 널판을 두어치쫘 빼내고 그 남쪽으로 세운 기둥을 두어 자쫘 넓혔다'<sup>27)</sup>라고 한 것처럼 바닥이 마루구조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선원사 비로전의 경우이기 때문에 강당이 아닌 불전의 예이다.

또한 바닥이 전이 아닌 흙으로 마감된 경우도 있었다. '광순 3년(953)에 超禪師가 曠陽山을 개척할 때 시자승이 있었는데 법당을 쓸기 위해 땅에 물을 뿌리는데 물이 뿌러지지 않은 곳이 있었다'<sup>28)</sup>고 한 것을 보면 법당의 바닥이 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의 8에서 불상이 殿의 흙바닥에 땀을 흘렸다고 한 것을 보면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흙으로 된 불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닥이 이처럼 흙이나 또는 전으로 된 경우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C.

1. 승려 해현은 백제사람이다. …… 처음에 북부 수덕사에 머무를 때 사람이 있으면 불경을 강의하고 사람이 없으면 불경을 외웠으므로 사방의 먼 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흠모하여 문 밖에 신발이 가득하였다.<sup>29)</sup>
2. 만약 비구가 예불을 드릴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쪽 어깨를 벗고 신발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다.<sup>30)</sup>

26)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 열화당, 1983, p.117.

27) 釋息影庵, 禪源寺毘盧殿丹青記, 『(국역)東文選』 6,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p.107. 卷之六十五. '其下板數寸 擴折其南楹數尺'

28) 原州 居頓寺圓空國師 勝妙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李智冠 역주. 高麗篇 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222. 또 『朝鮮金石總覽』 p.255. '廣順三年 造曠陽山超禪師 時有侍者僧 灑掃法堂少許地不受水'

29)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3. p.385. 卷第五, 避隱 第八, 惠現求靜條. '釋惠現 百濟人……初住北部修德寺 有衆則講 無則持誦 四遠欽風 戶外之履滿矣'

3. 이 부분에 별도로 다섯 가지 의식이 있으니 첫째가 신을 벗는 것, 이것은 거듭 공경의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 땅의 여러 신하들이 조정에서 임금을 뵈는 것처럼 모두 전 앞의 마당에 있을 때 신발을 신고 벗지 않으며 전에 오를 때에는 검과 신발을 벗는 것이 옛날의 법이고 지금 시작하는 예의가 아니다. …… 만약 불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제일이다.<sup>31)</sup>
4. 전당의 안은 종이를 바르고 왕골자리를 깔았으며 두루 단청을 칠하였다.<sup>32)</sup>
5. 성긴 발에 바람은 고요하고 당에는 달이 가득 찼는데, 차 달이며 오손도손 대나무 평상에 앉았으니, 뜰 반쯤 남아있는 눈에는 인적이 머물어 있다.<sup>33)</sup>

사료 1은 백제의 예로 惠現이 수덕사에 있을 때 대중들이 많아 문 밖에 신이 가득했다고 하였다. 이 곳이 강경을 한 곳으로 보아 강당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에는 강당에서도 불전과 마찬가지로 의례가 행하여졌던 곳이다. 그리고 문 밖에 신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비록 형식적인 표현일지라도 당시 신발을 벗고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불전의 예는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지만 고려시대 궁궐의 경우 편전에서 임금과 함께 정사를 논할 때 신하들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으며 다닐 때에도 무릎으로 걸어갔다고 한 것으로<sup>34)</sup> 보면 불전에서 신발을 벗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전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은 중국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사료 2에 의하면 비구가 예불을 드릴 때 신발을 벗고 무릎을 땅에 대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구만이 아니라 예불을 드릴 때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었을 것이다. 사료 3에 의하면 5가지의 의식 중에서 가장 공경하는 방식이 신발을 벗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특히 이 사료에 의하면 殿에서 임금을 뵈는 때 신발을 벗기 때문에 불상에 의례를 드릴 때에도 신발을 벗는 다고 한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도 불전을 출입할 때 신발을 벗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는 방식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신발을 벗는 것은 감히 편안함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5)</sup>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불전이 흙바닥이거나 전바닥일 경우 의례를 행하기에 불편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의례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했다.

사료 4는 용암사의 예인데 전당에 자리를 깔았으며 사료 5는 조선 초의 예이지만 가성사의 나한당에서 승려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불당에 발을 치고 대나무 평상을 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평상의 높이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료에서처럼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불전 바닥이 塹이나 흙인 경우 자리를 깔거나 床을 놓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sup>36)</sup>

### 3) 의례와 불전의 평면형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전에는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출입이 가능하였다. 불전에

30)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第二十, 通會部 第五,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三卷, No2122, p.434a. ‘若比丘禮時 從座起偏袒右肩 脫革屣右膝著地’

31)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第二十, 儀式部 第七,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三卷, No2122, p.434b. ‘述曰 此部別有五儀式 第一明脫履者 此爲中極敬儀也 如此土群臣朝謁之儀 皆在殿庭履屣不脫 有時上殿則劍履皆捨 此古之法非始今儀……若入佛堂得脫 第一’

32)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 『국역 東文選』 6,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p.172. 卷之六十八. ‘殿堂之內 以楮以莞 塗之鋪之 遍施丹雘’

33) 金時習, 『梅月堂詩集』 卷之十一, 佳城寺羅漢堂與僧話 - 珍原 - ‘風靜疎簾月滿堂 煎茶軟語坐筠床 半庭殘雪留人跡’

34) 徐兢, 『(국역)高麗圖經』 민족문화추진회, 1977. 卷 第五, 宮殿一, 王府條 ‘日視事於便座 惟施茵褥於榻上 國官親侍跪列其側……凡有事當上奏官當門接之 升階復位 皆脫履膝行而進退往來’

35) 贊寧撰, 『大宋僧史略』 卷上, 儀禮沿革,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四卷, No2126, p.238c. ‘西域之法禮有多種 如傳所明禮拜者屈己也 旋遶者戀慕也 偏袒者亦肉袒也 脫革屣者不敢安也’

36)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덕사 대웅전과 같이 당시에 영건되어 바닥이 전으로 된 불전의 경우 후에 전 바닥 위에 마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경우 바닥 전체를 전돌로 깔고 나서 불단 앞 한 칸에만 한 단 높여 마루를 깔아서 마루 사용의 선례를 보여주며 과도기적인 상황이며 조선 후기의 예인 法主寺 捌相殿(1628)과 華嚴寺 覺皇殿은 바닥 전체를 전돌로 깔고 있어서 傳來의 전통을 계승함과 아울러 내부에서의 예배행위를 위하여 이동식 나무 깔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강근, 『조선 후기 불교사원건축의 전통과 신조류』 『미술사학연구』 202호, 1994년 6월, p.132.

출입한 사람들은 불상을 향해 예배를 드렸을 것이며 불전의 평면은 당시의 예불의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을 것이다.

불전에서 행한 의례를 앞의 사료에서 찾아보면 사료 A의 1은 법회를 열었으며 사료 A의 2, 3, 4, 6은 불전에서 기도를 하였고 사료A의 5는 합장, 염불을 하였다. 그리고 사료 A의 7에서는 차공양을 하였는데 불상 앞에는 향안이나 향탁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의례들은 불상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당시 중요한 예배방식의 하나로 繞匝儀禮가 있는데 이는 고대 인도에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 주위를 돌면서 지나가는 풍속이 불교에서 도입되어 의례화된 것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旋繞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탑을 돌았던 繞塔 의례도 그 중 하나이다.

사료 D

1. 의상이 황복사에 있을 때 여러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항상 허공을 밟고 올라가 층계는 밟지 않았다.<sup>37)</sup>
2.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初八日에서 15일까지 서울의 남녀가 다투어 흥륜사의 殿塔을 도는 복회를 행하였다. 元聖王 때에 김현이라는 郎君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혼자서 탑을 돌기를 쉬지 않았다.<sup>38)</sup>
3. 또 하루는 육조단경을 읽고 놀라 기뻐하며 일어나 불전을 돌면서……<sup>39)</sup>
4. 종이 울려 대중이 모이면 대장전에 가서…… 주지는 대중을 인솔하여 합장하며 대장경을 들고 행도 세 번을 한다. 대중들은 한 번을 돌고 멈추어 선다.<sup>40)</sup>
5. 위나라 并洲의 승려인 靈辨은 어려서 출가하였는데 오로지 佛乘에 마음을 두어 화엄을 업으로 하여 전념하였다. …… 화엄경을 머

리에 이고 주야로 6년간 행도를 하였다.<sup>41)</sup>

사료 1에 의하면 의상이 황복사에 있을 때 요탑 의례를 했는데 황복사 탑은 석탑이었기 때문에 탑 주위를 돌았을 것이다. 사료 2에 의하면 殿塔을 돌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탑만이 아니라 불전도 돌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륜사의 탑은 목탑이었는데 목탑은 내부에 불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탑 안에서도 예불의례가 행하여졌을 것이다. 목탑의 내부공간을 보면 불상의 주위를 돌 수 있도록 계획되기도<sup>42)</sup> 하였지만 이 사료에 의하면 아마 불전과 탑의 외부를 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요탑의례가 흥륜사에서 매년 거행되어 도성의 많은 사람이 참여할 만큼 대중화되었고 또한 8일간이나 행하여질 정도라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도 요탑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43)</sup> 요탑은 당시 중요한 의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탑의 대상으로 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료 3에서는 불전을 돌았다고 하였는데 아마 사료 2의 경우처럼 불전의 외부를 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료 4는 중국의 예이지만 일반 대중들과 함께 大藏殿에 가서 대장경을 돌았다고 하였다. 대장경은 대장전 안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장전 안에 있는 대장경을 돌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료 5도 역시 중국의 예인데 6년간 주야로 행도를 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거나 또는 慧斌이 태산의 여러 절에서 행도에 우선하여 힘을 썼

37)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3. p.327. 卷 第四, 義解 第五, 義湘傳教條. ‘湘住皇福寺時 與徒衆繞塔 每步虛而上 不以階升’

38) 위의 책, p.373. 卷 第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逸輿輪寺之殿塔爲福會 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逸不息 有一處女念佛隨逸’

39) 松廣寺普照國師甘露塔碑,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李智冠 역주. 高麗篇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73. 또 朝鮮金石總覽 下, p.949. ‘又一日闕六祖壇經乃驚喜 起繞佛殿 頌而思之意自得也’

40) 『勒修百丈清規』 卷 第一, 且望藏殿祝壽, 新脩大正大藏經 第四十八卷, No2025, p.1114b. ‘鳴鐘衆衆 往藏殿……住持領衆合掌繞藏 行道三匝 多衆則一匝立定’

41) 『大方廣佛華嚴經感應傳』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一卷 No 2074. p.173b, ‘魏朝并洲僧靈辨 童子出家 精心佛乘 專以花嚴爲業 …… 頂戴華嚴 晝夜行道六年’

42) 李廷國 外, ‘高麗時代 木塔의 內部空間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3卷 10號, 1997년, 10월. pp.147-148.

43)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新脩大正大藏經, 第一十九卷, No 1024, p.718b. ‘佛言除蓋障此是根本陀羅尼咒 若欲作此法者 當於月八日或十三日 或十四日或十五日 右邊舍利塔滿七十七匝 誦此陀羅尼亦七十七遍 …… 命欲盡者而更延壽 一切宿障 諸惡趣業悉皆滅盡 永離地獄餓鬼畜生 所生之處常憶宿命 一切所願皆得滿足 則爲已得七十七億諸如來所而種善根 一切衆病及諸煩惱咸得消除’ 이외에 718c20, 719a24, 720a18 등 참조.

여기에서 흥륜사의 요탑의례가 8일에서 15일까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이 경전과의 관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다고<sup>44)</sup> 한 기록 등을 보면 당시 중국에서도 행도는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 여겨졌던 것 같다.

예배의 대상이면 모두 旋繞의 대상이었다. 繞佛이나 旋繞나 行道는 다 같은 말로 일정한 법식<sup>45)</sup>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 D의 1이나 2, 3의 예에서 처럼 탑과 불전뿐만 아니라 불전 안의 불상에게도 행도가 행하여졌다.

사료 E

1. 유가종의 祖師 高僧 大賢은 南山 葺長寺에 살았다. 그 절에는 미륵보살의 돌로 만든 장육상이 있었다. 대현이 항상 장육살을 돌았는데 장육상도 역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sup>46)</sup>
2. 선사가 강보에 싸여있던 시절부터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어서 …… 앓을 때에는 결가부좌를 하고 남에게 예를 표할 때에는 합장하고 절에 가서 불상을 돌면서 학생처럼 범패를 불렀다.<sup>47)</sup>
3. 僧尼의 법도로서 佛法의 헌장을 정한 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향을 사르고 정좌하여 상경과 상강의 법이며 둘은 향시행도와 음식과 범패를 창할 때의 법이요 셋째로는 포살과 차사, 회과 등의 법인데 모든 절들이 이를 따랐다.<sup>48)</sup>
4. 만약에 남녀가 수행을 마치고 절을 나가고자 할 때에는 불탑 앞에서 삼배로 예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모름지기 우측으로 세 번을 들

며 합장하고 범패를 한 후에 물러간다. …… 예불할 때에는 응당 세 번을 들고 세 번 절하며 사방으로 예배를 올리며 열 손가락을 모아 손을 정수리에 두고 물러 나아간다.<sup>49)</sup>

5. 수나라 때 양주 경공사의 스님 혜의가 …… 믿지 않는 고을 사람이 있어서 이내 별원으로 청하여 백일동안 행도를 하였다.<sup>50)</sup>
6. 정관 6년 6월에 이르러 크게 가뭄이 들었는데 도독인 應國公 무척이 불상을 맞이하여 재를 차리고 행도를 7일간 했다. 관료들이 불상 앞에서 상하로 서서 일심으로 관불을 하였다.<sup>51)</sup>
7. 또한 대중과 승려들을 청하여 독경과 행도를 삼칠일간하고 …… 일찍이 아침을 먹고 손에 향로를 들고서 노사나불을 세 번 돌고서 불 앞으로 돌아와 꿇어앉아 정념을 하였다. 대중들이 당에 가득하였지만 돌아가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sup>52)</sup>

사료 1은 8세기 중반의 일로 스님인 대현이 장육상인 미륵불상을 돌았다는 기록이며 사료 2는 872년의 비명으로 역시 불상을 돌았음을 보여준다. 사료 1은 스님의 예이지만 사료 2는 스님이 되기 전인 일반 신도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불상을 돌았는데 스님들은 돌면서 범패를 불렀다고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탑의례는 신도들도 하였으며 신도들도 불전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불전 안에서도 예불의례로서 행도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신도들이 행도를

44) 大唐西明寺沙門釋道宣撰, 『續高僧傳』 卷第二十, 新脩大正藏經 第五十卷, No2060, p.591b. 『釋慧斌. 姓和氏. 兗州人也 …… 乃往泰山靈巖諸寺 以行道爲務先』

45) 宋 道誠集, 『釋氏要覽』 卷中, 逸佛, 新脩大正藏經 第五十三卷, No 2127, p.288a. 『逸佛 又云旋繞 此方稱行道 西域記云 西天隨所宗事禮後皆須旋繞 蓋歸敬之至也 …… 三千威儀經云 旋繞有五事 一低頭視地 二不得蹈虫 三不得左右視 四不得唾地 五不得與人語話』

46)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3. p.346. 卷 第四, 義解 第五, 賢瑜珈 海華嚴條. 『瑜伽祖大德大賢 住南山葺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

47) 谷城 大安寺 廣慈大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李智冠 譯. 高麗篇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343. 『禪師自襁褓已來 凡有舉措 異於常流 …… 遇坐結跏 禮人合掌 尋寺繞佛 唱梵學僧』

48)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 第十六, 敬佛篇 第六之四, 發願部 第五, p.407a. 『所制僧尼軌範佛法憲章 條爲三例 一曰行香定座上經上講之法 二曰常日六時行道飲食唱時法 三曰布薩差使悔過等法 天下寺舍遂則而從之』

49) 위의 책, 卷 第三十九, 致經部 第三, p.593a. 『若男女所修事訖 須欲出寺 佛塔前設禮三拜 還須右繞三匝合掌 唵讚然後却行 …… 禮佛時應繞三匝三拜四方作禮 合十指掌又手於頂 却行而出』

50) 위의 책, 卷 第十八, 感應緣, 新脩大正藏經 第五十三卷, No2122, p.420a. 『隋襄州景空寺釋慧意 …… 有鄉人不信 乃請別院百日行道』

51) 위의 책, 卷 第十三, 感應緣, p.386a. 『至貞觀六年六月 大早都督應國公武禮 迎像建齋行道七日 官僚上下立於像前一心觀佛』

52) 大唐西明寺沙門釋道宣撰, 『續高僧傳』 卷第二十九, 新脩大正藏經 No2060, 第五十卷, p.698b. 『又請衆僧 讀經行道作三七日 …… 早食訖手執香爐 繞盧舍那三匝 還於佛前胡跪正念 大衆滿堂 不覺已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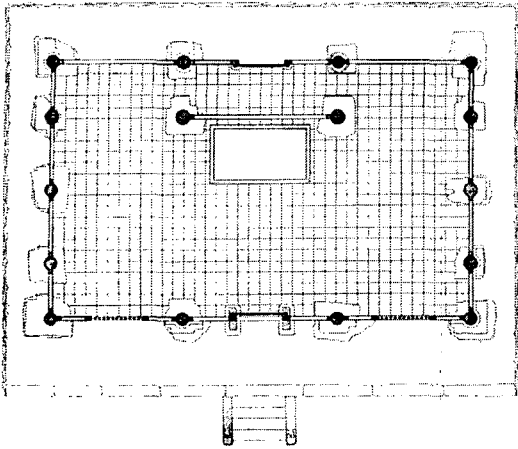


그림 1 봉정사 극락전 평면도  
문화재연구소, 『봉정사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년, p163.

했었다.

사료 3은 중국의 예인데 이 사료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많은 절에서 행도가 승려들의 일상적인 의례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불을 드릴 때 행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사료 4에 의하면 예불을 할 때 세 번 돈다고 하였는데 예불이란 불전 안에 있는 불상에 대한 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불전 안에서 행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료 5에 의하면 별원에서 백일동안 행도를 했는데 승려와 신도가 함께 행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료 6에서는 가뭄 때문에 도독인 응국공 무학이 행도를 7일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승려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도가 행하여진 예이다. 사료 7에서도 역시 대중과 승려가 함께 독경과 행도를 하였으며, 향로를 들고 불상을 세 번 돈 후 불상 앞에서 염불하는 의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당시 행도가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서 상당히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행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의례들이 기록된 法苑珠林은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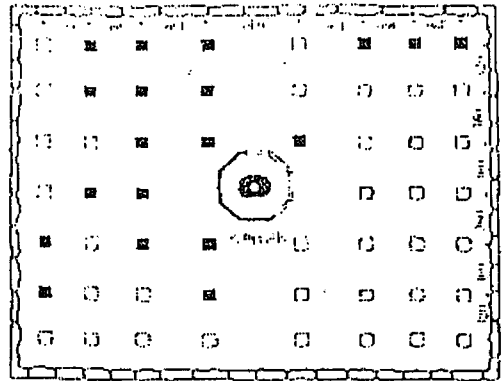


그림2. 춘궁리 동사지 금당평면도  
문명대, 광주지역 사지발굴의 성과와 의의, 불교미술, 10,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행도는 중요한 의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불전의 내부공간은 이러한 의례형식이 반영되어 이루어졌을 것이다. 행도를 위해서는 불상의 후면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전에서는 행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의 사료들에서 보았듯이 범회나 기도, 염불, 공양의례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례는 주로 불상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상 앞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5칸x3칸 규모인데 불상이 서쪽에 배치됨으로써 불상 뒤에 행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상의 전면에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평면형식이다.

현존하는 最古의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그림 1)의 경우 전면 3칸, 측면 4칸으로 원래의 불전 바닥은 방형의 전돌로 되어 있다.<sup>53)</sup> 불단은 측면 3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어 맨 뒤쪽의 칸이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행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춘궁리 동사지(그림2)의 경우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은 규모가 정면이 7칸이고 측면이 6칸인 대규모 건물인데 정중앙에 불상의 대좌로 보이는 팔각기단부가 발굴되었다. 측면이 6칸이나 되기 때문에 중앙의 2칸에 불상이 놓인다 해도 앞쪽과 뒤쪽으로 각각 2칸씩의 여유공간이 있게 된다.

청주 흥덕사지 금당의 경우 정면 3칸x측면 4칸

53) 문화재연구소, 『봉정사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년,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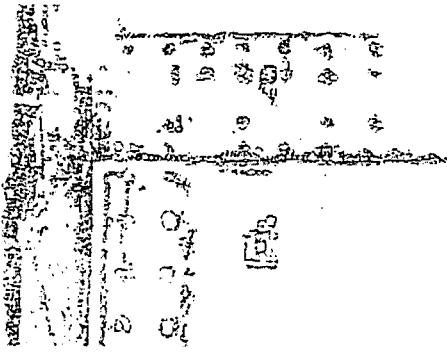


그림 3 壬佛里 天德寺址 금당부분.  
安春培, 居昌 壬佛里 天德寺址, 釜山女子大學  
博物館,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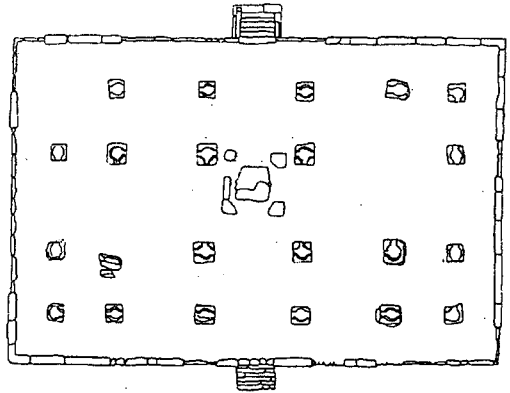


그림 4. 거둔사지금당 평면도  
原城郡(1986), 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p.47에서 수정 인용

의 건물로서 佛像臺石은 내진초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sup>54)</sup>

이들 금당의 평면은 측면이 3칸 이상인 경우가 때문에 불상이 불전의 중앙이나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행도를 위한 공간과 예불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지만 측면이 2칸인 경우에도 불상 주위로 예불 공간을 형성한 예가 있다.

임블리 천덕사지 금당은(그림3) 평면이 정면 7칸, 측면이 2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前後間의礎石間의 거리는 전면초석열과 중앙초석열 사이는 3.5m, 중앙초석열과 후면초석열 사이는 2m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다고 한다. 금당의 中央間에 있는 유구는 불대좌를 놓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sup>55)</sup> 만약 이 위치에 불단이 있었다면 중앙초석열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단 뒷부분이 공간으로 남는다. 금당의 측면이 단지 2칸에 불과한데 전면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불단은 북쪽의 벽에 붙여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사이를 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불전 중에서 측면이 2칸인 경우 불단은 일반적으로 후면의 벽에 붙이거나<sup>56)</sup> 아니면 불단의 전면이 중앙 기둥선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서<sup>57)</sup> 불단 후면의 공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

이 없는 것과 대비가 된다.

이처럼 당시 불전의 평면을 보면 측면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불단의 위치가 금당의 중앙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난 곳에 있다. 이는 행도를 위한 공간을 형성하면서 불상 앞쪽에도 어느 정도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그 앞에서 예불 등의 의례를 위한 평면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그런데 황룡사지 중금당, 거둔사지 금당, 영암사지 금당, 법광사지 금당 등에서는 내진주 사이에 벽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된다.<sup>59)</sup> 이 경우 내진벽과 외벽 사이는 복도와 같은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 물론 행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진벽이 없는 경우에도 행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진벽이 세워진 평면의 경우와는 어떠한 차

54) 청주대학교 박물관, 「청주흥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86년, p.40

55) 釜山女子大學 博物館, 「居昌 壬佛里 天德寺址」, 1987년, p.48.

56) 이러한 예로는 1640년에 세워진 옥천사 大雄殿이 있다.

57) 이러한 예로는 1612년의 청곡사 대웅전, 1677년의 보경사 대웅전, 17세기의 승림사 보광전 등이 있다.

58) 중국의 경우 당시 불전이 발굴된 예는 많지 않지만 석굴의 평면을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둔황 마고굴에서 중심에 塔柱를 가지며 앞과 뒤에 2개의 공간으로 석굴을 구성하는 석굴형식은 전면의 공간은 승도들이 집회하기 위한 공간이며 후면의 공간은 오직 승도들이 중심탑주를 돌면서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蕭默, 「敦煌莫高窟의 石窟形式」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2卷, 平凡社, 1997년. p.209. 또한 이강근, 「韓國과 中國의 古代佛殿建築 比較연구-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30, 한국미술사학회, 2001, 6, 참조.

59) 우리나라에서 내진벽으로 이루어진 불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황룡사 중금당, 화엄사 각황전, 법광사지 금당, 영암사지 금당, 거둔사지 금당, 상경용천부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절터의 금당이 있다고 한다. 이강근, 「韓國과 中國의 古代佛殿建築 比較연구 -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30, 韓國美術史學會, 2001, 6, p.30 참조.

이가 있는지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둔사지 금당(그림 4)은 전체의 규모가 5칸x3칸이고 내진칸은 3칸x1칸인데 내진칸이 통칸이 아니라 내진칸 사이에도 벽체를 세워 3칸이 각각 분리된 형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법광사지 금당은 내진벽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봉안하였는데 불상 대좌와 내진벽의 북벽 사이에 다시 후불벽을 설치한 흔적이 있다고<sup>60)</sup> 한다.

또한 비록 문헌으로만 파악될 뿐이지만 九山禪門의 하나인 태안사 금당은 또 다른 형식의 평면일 가능성이 높다. 태안사지의 사적기 편사에 기록된 廣慈禪師 重創 때의 건물에 대한 내용 중 금당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金堂 一間排回 丁向 上柱四長八尺五寸 退柱十二長七尺八寸 上楹二長十二尺 退柱十二長六尺五寸 樑三長十二尺 通內廣九尺七寸 長十尺五寸 階高四尺<sup>61)</sup>

위의 기록에서 먼저 上楹二長十二尺 退柱十二長六尺五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退柱는 退楹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 退柱가 있어서 반복되며, 다른 건물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순서 상 退楹가 와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태안사는 사찰의 규모가 다른 사찰에 비해 작은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sup>62)</sup> 금당의 규모가 一間排回로 기록되어있다. 당시 사찰의 금당은 현재 대웅전의 일반적인 규모인 3칸x3칸과 같거나 더 큰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一間排回’는 가운데 불상을 모신 사방 1칸부분이 있고 그 주변 사방에 뒷간이 둘러싸고 있는 평면을 가리키는 것<sup>63)</sup>이라고 한다. 이는 곧

上柱 4개로 1칸을 구성하고 그 주위 4면에 빙 둘러서 退柱를 배열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1칸이라는 기록과 다르다. 그런데 만약 上柱 4개로 만들어진 중앙의 1칸 부분만 벽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의 退柱로 만들어진 부분은 벽이 없이 개방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1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불전 안에 내진벽이 설치된 예가 일부 보이고 있는데 내진벽에 의한 평면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진벽과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64)</sup>

지금까지 의례방식과 불전의 평면형식을 살펴 보았는데 당시의 모든 불전이 이러한 의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평면형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상이 없이 불화만으로 장엄된 불전의 경우 불상을 도는 행도의례는 없었을 것이다.<sup>65)</sup>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교과가 형성되어 각 교과마다 나름대로의 공간구성을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사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획일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3. 결론

고대와 중세의 주요 사찰에서 불전은 대부분 사찰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이는 그 당시 전체적인 동선의 체계에 적합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전이 예불의 중심공간임을 고려할 때 불전의 내부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사찰의 배치나 공간구성을 이해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불전의 내부공간, 특히 그 중에

60) 이강근,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12,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8, p.76.

61)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韓國寺志叢書 第12輯 『泰安寺誌』, 『高麗太祖二十有年頃 廣慈禪師重創當時佛像間閣』 서울亞細亞文化史, 1984년. p.113.

이 문서는 1200년대 전반을 내려가지 않는 고려시대 문서로 추정된다고 한다. 金東旭, 「谷城 泰安寺와 順天 松廣寺 建物構成에 대한 考慮時代 文書」, 『建築歷史研究』 3호, 건축역사학회, 1996. 6, p.152.

62) 사적기에 기록된 칸수를 합치면 132칸이 된다. 물론 이 칸수는 전면의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의 전체 칸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어서 승려 또는 개인이 영건하는 사찰의 경우 그 규모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80-100여 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李廷國, 「高麗時代 寺刹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漢陽大 博士學位 論文, 1997년 12월) p.50. <表 3-3> 참조.

63) 김동욱, 앞의 논문, p.149.

64) 이러한 평면에 관한 내용은 이강근의 앞의 논문들이 참조가 된다.

65) 사료 A 4의 경우 분황사 좌전의 북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앞에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불상은 없었고 그림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분황사의 배치는 삼금당형식이지만 고구려의 삼금당형식과는 달리 세 개의 금당이 모두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전의 북벽은 남쪽으로 난 불전의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보게 된다. 따라서 북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佛畫 앞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 불전에 불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행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증금당에는 불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도는 증금당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각 불전마다 용도를 달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서도 불전의 출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래 우리 나라의 불전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었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승려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불전을 출입했던 승려나 일반인들은 그 안에서 법회나 기도, 염불, 공양, 행도 등의 다양한 의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법회나 기도, 염불, 공양 등은 불상의 전면에 공간이 필요하며 행도를 위해서는 불상의 후면에도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당시 불전의 평면은 불상이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후퇴하여 놓임으로써 불전 안에서 이러한 의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평면형식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료가 부족하여 불교가 도입된 이후부터 삼국시대 후기까지 불전에 출입이 가능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인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불교의 교리나 의례 형식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불전의 출입문제와 공간의 이용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그러한 변화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평면 형식에 대한 해석과 전체적인 동선체계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3.
2. 『(北譯)高麗史』 사회과학원 古典研究室 編纂, 新書苑, 1991.
3. 『(국역)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4.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1.
5.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李智冠 역주. 高麗篇1-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1996.
6. 『泰安寺誌』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韓國寺志叢書 第12輯, 서울亞細亞文化史, 1984년.
7. 大宋僧史略,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四卷, No2126.
8. 無量壽如來觀行供養儀軌, 『新脩大正大藏經』 第十九卷, No930.
9. 法苑珠林,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三卷, No2122,
10. 續高僧傳,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卷, No2060.
11. 續清涼傳, 『新脩大正大藏經』 第五十一卷, No2100.
12. 勅修百丈清規, 『新脩大正大藏經』 第四十八卷, No2025.
13. 金正基, 「高麗時代·木造建築」 『考古美術』 175-176호, 한국미술사학회, 1987, 12.
14. 이강근,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殿建築 비교 연구」 『美術史學研究』 230, 한국미술사학회, 2001, 6.
15. 이강근,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12,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8.
16. 藤田勝也 古賀秀策, 『日本建築史』 昭和堂, 1999.
17. 山岸常人, 「古代金堂の性格の変容」 『日本建築學大會學術講演概要集(東海)』 昭和 60年 10月.
18. 淺野 清, 「日本の佛堂」 『佛教藝術』 69号, 毎日新聞社, 1968.
19. 簫默, 「敦煌莫高窟の石窟形式」 『中國石窟敦煌莫高窟』 第2卷, 平凡社, 1997.

# A study on the usage of the Buddhist sanctum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Focused on the study of the literature-

Yi, Jeong-Goog  
(Doctor Of Engineering)

## Abstract

The main buildings of the important Buddhist temples - the pagoda, the Buddhist sanctum, the lecture hall - was surrounded by the cloister until Koryo Dynasty. And the Buddhist sanctum was located the center. It meant that the Buddhist sanctum was important building.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we understand the usage of the interior space because the architectural space consists of the unified space by the organic function of the interior space and the exterior sapce. But there is not so much the study on the interior space of the Buddhist sanctum.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of the interior space of the Buddhist sanctum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Till now, it was impossible that the Buddhist monk or the General public entered the Buddhist sanctum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because they regarded the Buddhist sanctum as the place of sacrosanctity and the floor was finished by bricks.

But, we saw that they could enter the Buddhist sanctum. Of course the floor of the Buddhist sanctum was finished by bricks, but they spread mats on the floor, took off his shoes in the interior space and used the furniture for sitting on

The plan of the Buddhist sanctum was designed by the process of the ceremony and the way of the enshrinement of the Buddhist statues because it is the place to enshrine the Buddhist statues. They performed the ceremony like as pray, worship, offer food to Buddha, *HaengDo* - an act to turn round an object of worship - and so on in the interior space of the Buddhist sanctum.

---

keywords : entrance of the Buddhist sanctum, ceremony, *HaengDo*, the plan of the Buddhist sanctum

---